

**권광택 조이바이오(주) 회장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위해 살균소독제 1만 병 기부**



권광택 조이바이오(주) 회장(사진 왼쪽 첫 번째)

권광택(대종회 부회장) 조이바이오 회장은 지난 3일 교민 및 지역주민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을 위해 7000만 원 상당의 분사식 살균소독제 '유니-케어' 1만 개를 기탁했다. 기탁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되어 있는 교민과 지역주민 및 근무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권 회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권광택 회장의 "인생 여정은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2008.3.19. 충북일보) 같지만 기부에 대한 그의 철학은 분명하다. 권 회장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기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책임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다. 지역사회라는 바탕이 있기에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바이오 권광택 회장은 "세계적 확산 일로에 있는 CV감염증 예방의 살균소독제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장 첫 출시 제품을 기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권필순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권필순(60) 자문위원이 평화통일 활동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권 자문위원은 울릉읍 새마을 부녀회회장,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울릉군 해돋이적십자협의회, 바로게 살기협의회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이번에 표장을 받았다. 주요 사회봉사활동으로는 고령으로 농

사일이 힘든 농가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돕기, 소년소녀가장 이불 빨래 봉사, 흘로 사는 노인 밀반찬 만들며 주기, 청소, 목욕봉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이다.

권오을 예비후보 안동형 뉴딜정책 발표



권오을 예비후보가 2월 12일(수) 오전 11시 안동시 옥동에 소재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안동형 뉴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당선되면 안동을 위해 해야 할 중요쟁점과 사안들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후보는 안동의 현 상황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159,844명이라고 하며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안동시민 평균나이가 47세로 전국 평균나이 42.7세보다 현저히 많으며, 도심 공동화는 물론 지역의 경쟁력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며, 종족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동만의 장점을 살린 일자리를 창

출하는 컬러 콘텐츠의 발굴과 함께 "안동형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웹툰·소설·영화·애니메이션, 공연기획 등 문화산업 투자(소프트웨어 산업)를 비롯하여 안동의 장점을 살린 문화관광과 체험형 관광 그리고 스포츠 관광 융합정책, 대기업의 문화관광 투자를 유발하여 다양한 청년 일자리와 노인 친화형 벤처 기업 일자리 공약 등이다. 권오을 무소속 예비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 선순환 자립형 뉴딜 경제정책은 반드시 할 수 있고, "안동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하며 자신의 공약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권광선(權光善, 棣교공파 31세) 총장 취임



전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거쳐 동양대학교 부총장, 학생처장, 국제협력원장, 대학원장, 중국 청도과기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권광선 박사는 2020년 2월 1일 자로 동양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권광선(64) 신임 총장은 동양대 글로벌비지니스학과 교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논란이 일 때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었다.

총장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신임 권 총장은 내년 8월이 정년이다. 권 총장은 경북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제33대 안동청년유도회 회장 취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학문과 과학에 뛰어난 계문의 고제, 안동 간체 이덕홍 종가'(2018), 역서로는 '국역 도곡선생문집'(2019, 공역) 등이 있다.

100만 족친여러분! 한복과 도포는 한복의 명가



에서 마련합시다

족친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신화직물 우영경 한복점을 45년째 운영하고 있는 권태형(35세)입니다.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족친여러분에게 선비의 의상, 한복과 도포를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족친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가격표	
안동포 한국산 특-A	도포1벌(기타 부속 일절) 2,350,000원 한복 상하 1벌 1,450,000원 계 3,800,000원
안동포 한국산 특-B	도포1벌(기타 부속 일절) 1,950,000원 한복 상하 1벌 1,200,000원 계 3,150,000원
수입원단 A	도포1벌(기타 일절) 1,450,000원 한복 상하 800,000원 계 2,250,000원
수입원단 B	도포1벌(기타 일절) 1,100,000원 한복 상하 450,000원 계 1,550,000원

*한복과 도포는 개별 판매 가능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0길 48(창동) 대표 전화번호 055-244-5555 / 권태형 010-3599-7611

마·창·진 종친회장, 안동권씨 지역종친회장협의회 간사 권태형

동정



▲우리은행장 후보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내정됐다. 권광석 후보는 1963년생으로, 1988년 상업은행에 입행한 뒤 우리은행 미국 워싱턴 지점 영업본부장, 무역센터금융센터장, 우리금융지주 흥보실장, 우리은행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쳐 자회사인 우리PE 대표를 끝으로 우리금융을 떠났다. 권광석 후보는 다음달 23일 주주총회에서 공식으로 선임된다.

북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현일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권혁대(사진 왼쪽) 목원대학교 총장이 대전크리스챤리더스클럽 제9대 회장에 취임했다. 권 총장은 "회장직을 맡아 대전크리스챤리더스클럽을 이끌어가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회원들간의 친교와 각 소속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12월까지 대표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6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권기홍 위원장을 제5대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Albert-Ludwigs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장, 더불어복지재단 이사장, 노동부장관, 단국대 총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2월 4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취임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신임 권기용 본부장이 지난 1월 2일 취임했다. 권 본부장은 대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사 후 본사 기획팀장을 거쳐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본사 입지지원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